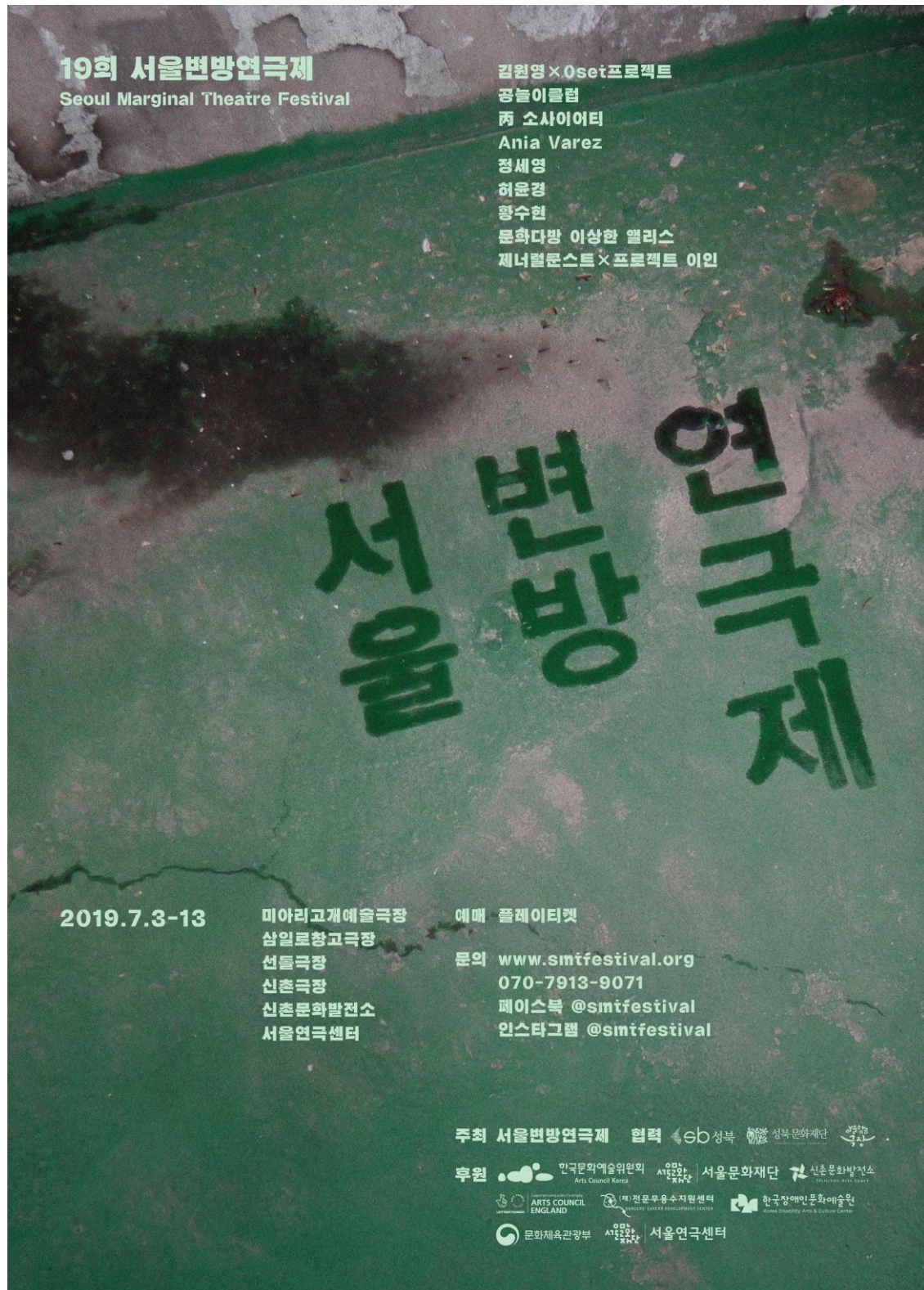


제19회 서울변방연극제

Seoul Marginal Theatre Festival 2019



19회 서울변방연극제
Seoul Marginal Theatre Festival

김원영 X Oset 프로젝트
공놀이클럽
丙 소사이티
Ania Varez
정세영
허윤경
황수현
문화다방 이상한 엘리스
제너럴리스트 X 프로젝트 이인

2019.7.3-13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삼일로창고극장
선돌극장
신촌극장
신촌문화발전소
서울연극센터

에매 플레이티켓
문의 www.smtfestival.org
070-7913-9071
페이스북 @smtfestival
인스타그램 @smtfestival

주최 서울변방연극제 협력 sb 성북 성북문화재단 서울연극센터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신촌문화발전소

ARTS COUNCIL ENGLAND (사)전통문화유산지원센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연극센터

2019년 7월 3일(수) - 7월 13일(토)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삼일로창고극장 선돌극장
신촌극장 신촌문화발전소 서울연극센터



참여 아티스트

김원영 x 0set 프로젝트
공놀이클럽
丙 소사이어티
정세영
허윤경
황수현
문화다방 이상한 엘리스
제너럴쿤스트 x 프로젝트 이인

장소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삼일로창고극장
선돌극장
신촌극장
신촌문화발전소
서울연극센터

주최 서울변방연극제
주관 서울변방연극제
협력 성북구, 성북문화재단, 마을담은극장 협동조합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신촌문화발전소, Arts Council England,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연극센터

예매 플레이티켓
문의 070-7913-9071
www.smtfestival.org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mtfestival

(예술감독의 글)

변방으로부터의 초대

안녕하세요?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 이경성입니다.

오래 만에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서울변방연극제가 오는 7월, 다시 돌아옵니다.

지난 2017년 '25시-극장전'이라는 제목으로 18회를 치른 후 벌써 2년이 흘러 19회 서울변방연극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인을 목전에 둔 나이이니 축제로서 꽤나 성숙해졌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하여 올해에는 연극제의 전반적인 구조를 재정비하고 여러 변화들을 도모해 보았습니다. 우선 한국의 극단 크리에이티브 VaQi와 오랜 인연을 맺고 활동해온 호주 연출가 아드리아노 코르테제(Adriano Cortese)가 공동 예술감독으로 선임되어 연극제의 컨셉과 진행전반을 함께 계획해나갔습니다. 연극제 5개월 전부터 한국에 머물며 열정적으로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 연극제의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홍보 및 기획행정을 코르코디움의 이정은 대표가 총괄 프로듀서로 합류하여 도맡고 있고 연극계에서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변방연극제 대표 전강희가 프로그래밍 디렉터의 역할로 세부적인 연극제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번 19회 서울변방연극제는 주제 없이 크게 <공연>, <토크>, <워크>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공연>은 초청 공연 및 축제 제작 공연, 해외초청공연이 선보여지는 장으로 올해에는 극작가 강훈구가 맡고 있는 극단 공놀이 클럽,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의 저자 김원영 변호사와 신재 연출의 협업, 안무가 황수현, 안무가 허윤경의 초청작과 송이원 연출의 병 소사이어티, 정세영 안무가의 신작이 연극제 제작 작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해외초청작으로는 베네수엘라 출신 다원작가 에니아 바레즈(Ania Varez)의 Guyabo(애도파티)가 아시아 초연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워크>에는 완성된 공연이 아닌 참여 작가들이 자신들의 질문을 구체적인 형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연극실험을 해온 연출가 윤사비나와 사운드 설치 작업을 주로 해온 제너럴쿤스x이인이 함께 참여합니다. 프로그램 디렉터 전강희가 전 과정을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함으로써 과정을 오픈하고 관객들과 나누는 형식들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크>는 연극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담론들을 다양한 주체들과 이야기 나누는 장소입니다. 오늘날 창작자들에게 '관객'이 의미하는 바를 논해보는 '나는 오늘도 노트북 앞에 앉아 지원서를 쓰다 관객개발 항목 앞에서 멈칫 한다'(7/9)와 <워크>의 일부로 진행되는 '관객참여에 대하여'(7/6)는 '관객'이라는 커다란 테마로 진행되는 연극제의 포럼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페미니즘 연극제와의 공동주최로 '연극을 쿼어링'이라는 제목의 토크(7/8)가 열리며, 서울변방연극제의 마지막 날에는 연극제의 오랜 전통인 '관객비평단'이 2주간 연극제의 공연을 모두 본 후 창작자들을 초청하여 비평을 나누는 관객 비평단 수다회(7/13)가 열리게 됩니다.

축제를 준비하며 다시금 '변방'의 의미를 곱씹어 봅니다. 서울변방연극제에서의 변방(邊方)은 주변부를 배제하는 중심과 권위에 대한 반성, 중심과 주변부를 재배치하는 '전복', 경계를 치고 들어오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경계에서의 만남과 수용' 이어왔습니다. 그러기에 서울변방연극제는 언제나 최전방으로서의 변방(邊防)을 의미했습니다. 이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그 동안 많은 예술가들이 때로는 형식으로부터, 때로는 주제의식으로부터, 또는 하나의 예술적 저항운동 자체로서 작품을 발표하고 동시대 관객들과 소통을 시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 간절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 우리가 처한 세계도 다시금 어떤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는 난민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대재앙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한국사회 내부적으로는 남북평화문제와 미투혁명 이후의 젠더이슈, 사회적 양극화 등 여러 난제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스케일은 저마다 다르지만 이 모든 사안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면 타자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이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감수성이 변화하려면 이미 익숙한 감각, 제도화되고 중심에 고정된 인식들이 뒤흔들려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낯설고 불편하고 두려운 것일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현실을 새로이 바로 보고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올해 서울변방연극제에 참여하는 공연 예술가들이 바로 그러한 시도들을 기꺼이 감행합니다. 그들은 '나'와 타자(관객) 사이의 공간, 차이, 거리에서 다양한 감각실험들을 시도합니다. 그럼으로써 내 주변부와외의 관계를 재편하고 재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 공간은 불안정하고 모호한 곳이지만 그렇기에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는 생성의 공간이 됩니다.

이 번 연극제를 준비하면서 아드리아노 예술감독과 언캐니(Uncanny)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 했었습니다. 단어자체로 번역하자면 이상한, 묘한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언어로 규정하거나 포착할 수 없는 상태나 감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고정되고 확실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지만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 안정성을 깨고 나와 '언캐니'의 상태를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면의 공간을 처절하고 흥미롭게 생성해내는 것이 '변방'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19회 서울변방연극제가 여러분들을 언캐니의 여정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2주간의 여정에 기꺼이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술감독 이경성

프로그램 일정표

작품명	공연단체/아티스트	일정	장소	예매
테이크 미 아파트 (*)	공놀이클럽	2019년 7월 3 일(수)-4 일(목) 수,목 8시	선돌극장	20,000 원
Shame Shame Shame (*)	정세영	2019년 7월 4 일(목)-6 일(토) 목,금 8시 / 토4시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15,000 원
미니어처 공간 극장 (*)	허윤경	2019년 7월 7 일(일)-8 일(월) 일 4시 / 월 8시	선돌극장	20,000 원
신토불이 진품명품 (*)	丙 소사이어티	2019년 7월 10 일(수)-12 일(금) 수,목,금 8시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20,000 원
나는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생각한다	황수현	2019년 7월 10 일(수)-13 일(토) 수,목,금 8시 / 토 7시	신촌극장	20,000 원
Guayabo	Ania Varez (베네수엘라)	2019년 7월 11 일(목)-13 일(토) 목,금,토 8시	선돌극장	20,000 원
사랑 및 우정에서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김원영×0set 프로젝 트	2019년 7월 11 일(목)-7월 13 일(토) 목,금 8시 / 토 3시,7시	삼일로창고극장	20,000 원
질문들 (+)	제너럴쿤스트×프로젝 트 이인	2019년 7월 9 일(화) 3시, 7시	신촌문화발전소	무료
내 눈 안의 너 (+)	문화다방 이상한 앨리스	2019년 7월 9 일(화) 8시	신촌문화발전소	무료
연극을 쿼어링!	서울변방연극제 & 페미니즘 연극제	2019년 7월 8 일(월) 2시	서울연극센터	무료
나는 오늘도 노트북 앞에 앉아 지원서를 쓰다 '관객개발' 항목 앞에서 멈칫 한다	서울변방연극제	2019년 7월 9 일(화) 2시	서울연극센터	무료

(*) 초연 / 초청공연 / 축제 공동제작공연 / 워크룸(+) / 토크

■ 테이크 미 아파트 | 공놀이클럽

2019. 7. 3(수) - 7. 4(목) 8시 | 선돌극장



초연/재연	초연
소요시간	80 분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티켓유무	20,000원

공동창작

연출 강훈구

출연 김무늬, 김은우, 주혜영, 강훈구

무대/조명 디자인 이경은

음향 디자인 이재

[작품소개]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파트 키즈’의 ‘아파트 유랑기’를 담은 극이다. 신도시에서 다시 신도시로 이어지는, 즉 ‘주공아파트-단지 아파트-브랜드아파트’로 이어지는 아파트 유랑의 역사를 다룬다. 아파트에서 이뤄진 사춘기의 역사, 연애의 역사를 들여다본다. 파편화된 고향을 순회하듯 이야기를 따라가면, 커커이 쌓인 육각면체가 빚어낸 습관, 관계 맺기, 사고방식, 그리고 ‘몸’을 만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몸을 상상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는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몸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북적거리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티스트/단체소개]

“공놀이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이근화의 詩, ‘공놀이’ 中

— 다시 한 번 공놀이를 생각하네. 공을 차면, 거짓말같이 공이 떠올랐지. 거짓말같이 해가 저물었지. 아파트 유리창이 부서질지, 옷이 더러워질지, 녹슨 못이 바닥에 박혀있을지, 우리는 걱정하지 않았지. 하나의 공을 쫓았지만 놀랍게도 공을 쫓는 모습은 모두가 달랐지. 우리는 각자 무방비 상태였지. 우리는 모든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랬지. 그래. 우리도 알지. 어른들은 공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언제나 세상은 온 힘을 다해 공놀이를 방해한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다시 공놀이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지.

무모하게도 우리는 세상보다는 공을 믿기를 결심했지. 연극은 어른이 하는 공놀이. 연극은 공을 믿기 위한 연습. 세상을 연극으로 만들기 위한 연습. 다시, 거짓말처럼 공이 굴러가지. 아니, 우주가 굴러가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시간이, 세상에 없던 공간이 생겨나지. 당신에게 공이 굴러가지.

<공놀이클럽>은?

— 공놀이의 원초성에서 발견한 대안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공놀이하듯 협업하는 연극 플랫폼. 배우, 디자이너, 연출가가 모여 예술의 사회적 책임과 미학적 성취, 그리고 감각적 새로움을 도모하고 있다. 공이 튀듯 무대와 무대 바깥, 작업자와 관객, 예술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아까와는 다른 시간을 위해서.

■ Shame Shame Same | 정세영

2019. 7. 4 (목) - 7. 6 (토) 목금8시,토4시 |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초연/재연	초연
소요시간	60 분
관람연령	만 13세 이상
티켓유무	20,000원

연출 및 무대미술 정세영
출연 정세영
사운드 디자인 김성환
무대 제작 이신실
제작 협력 PACT Zollverein

Photo from Expulsion of Adam and Eve from Eden, Masaccio (1425)

[작품소개]

공연<Shame Shame Shame>은 Shirley & Co의 노래에서 그 제목을 차용했다.
이 작업은총3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인공의 부끄러웠던 낮과 밤 그리고 부끄러워질 새벽이 그려진다.

[아티스트/단체소개]

정세영은 다양한 매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극장이라는 공간을 탐구하고 있다. 특히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극장의 환영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매체의 융합보다는 그것의 고유한 성질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는 극장에서 행해지는 비극의 실효성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후원 성북구, 성북문화재단, 마을담은극장 협동조합

■ 미니어처 공간 극장 | 허윤경

2019. 7. 7(일) - 7. 8(월) 일4시, 월8시 | 선돌극장



초연/재연	초연
소요시간	45 분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티켓유무	20,000원

공동창작

연출, 안무, 출연 **허윤경**

사운드 **지미 세르**

사진 copyright Ian Douglas

[작품소개]

몸이 공간의 어떤 부분들과 맞닿는 시간을 보내면, 몸 안에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이다. 이때 공간의 일부이기도 한 몸은 여러 공간에 대한 기억과 정보를 담고 있는 지도가 된다. 일시적인 지도가 새겨 지고, 정보가 축적되고, 역으로 지워지기도 한다. 작품은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 자체를 하나의 춤으로 상정하면서 공간과 몸의 관계를 재인식해보려는 시도이다. 공연을 수행하는 몸, 보고 있는 몸, 이 모두를 담고 있는 커다란 몸으로서 극장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관찰해보고자 한다.

[아티스트/단체소개]

허윤경은 꾸준히 다양한 작업에서 안무가, 퍼포머로 활동해오고 있다. 몸 대 몸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무대 언어가 지닐 수 있는 다양함을 견하는 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 전문사 과정을 졸업하였으며, 몸과 움직임을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으로 만나게 되면서부터 공연예술을 시작하게 되었다.

뉴욕Movement Research Exchange - 서울무용센터Space RED 교환 안무가(2019. 1), Art Omi: Dance Resident Artist(NY, 미국/ 2018. 7. ~ 8.)

주요 안무(및 출연)작 / 미니어처 공간극장(Theatre of Miniature Spaces)>(2018-2019), <은근어디든>(2017-2019), <일상 변역기>(2018), <스페이스-쉽(Space-ship)>(2016-2017)

주요 출연작 / <강진안, 공연화, 김민정, 김성완, 배기태, 슬기와 민, 신예슬, 신진영, 심우섭, 오민, 이신실, 이양희, 이영우, 이태훈, 장태순, 정광준, 조세프 풍상, 한문경, 허윤경, 홍초선,>(2018), <미소서식지 몸>(2018), <움직임이 움직임을 움직이는 움직임>(2018), <세 계의 경로>(2018), <흐르는 중개>(2018), <트랜스픽셀 움직임 워크숍>(2018), <Tracers>(2018), <은하계제국에서 랑데부>(2018), <숨의 자리>(2017), <시체웃>(2016) 외 다수

■ 신토불이 진품명품 | 丙 소사이어티

2019. 7. 10(수) - 7. 12(금) 8시 |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초연/신작	초연
소요시간	분
관람연령	만 13세 이상
티켓유무	20,000원

연출 송이원

조연출 손영규

드라마터그 김진아

대표 구성 송이원, 안정민

구성 회의 丙 소사이어티

글 송이원, 오수환, 허지우

출연 권형준, 송하늘, 유이든

무대 김재란

조명 이해지

음향 목소

영상·도큐먼트 노지윤

무대감독 박진아

퍼실리티테이터 황정현

[작품소개]

"신토불이"는 "몸과 태어난 땅은 둘이 아닌 하나이기에 제 땅에서 난 것이어야 체질에 잘 맞는다"는 의미로 '한국적인 것'이라고 통용되는 말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영토(土)에서 한 몸(身)으로 태어나 살아가기 위해, 순응하고 따라야 할 '한국인의 규범적 체질'이란 무엇인가? '한국적인 체질'을 체화한 신체만을 정상으로 강요하는 규범적 이데올로기는 국가주의 신화와 만나고 있다. 공연은 신토불이를 역으로 바라보며, 비규범적 신체를 위한 공간과 장소를 비집어내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비정상적으로 여겨지는, 따라서 안정적인 장소를 부여받지 못하는 몸들의 이야기를 무대화하고자 한다.

[아티스트/단체소개]

송이원

2015 "꼬마 짱꼴라" 연작
- 꼬마 짱꼴라
- 꼬마 짱꼴라: 전인교육

2015-2017 "노동집약적 유희" 연작

- 노동집약적 유희 2016
- 노동집약적 유희 2016: 레크리에이션
- rodong.zip + 노동집약적 유희 2017: 테마파크
- 노동집약적 유희 2017

2018- "신토불이" 연작 진행중

- 우리의 뿌리는 왜 발이 되었나
- 부재중인 방
- 신토불이, 조각들

丙 소사이어티

언젠가 소사이어티 선생님이 소사이어티 시간에 둘만 모이면 소사이어티가 되는 거라고 어디 책에서 봤다고 나한테 그러던데 아니 그렇다면 앞집 甲이랑 옆집 乙이랑 이렇게 둘이서만 놀면 개네들의 소사이어티가 아무래도 재미가 없을까봐 나도 같이 놀자고 쿠키 구워 갖고 놀러 갔는데 둘이서 甲-乙 놀이할 거라고 그딴 식으로 나를 따스키면 나는 심심하고 나는 외롭고 나랑 캐치마인드 같이 할 사람도 없고 내 얘기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여기저기 거울을 막 봤는데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丙스런 사람들이 丙같은 방법으로 丙적인 이야기를 할 거다.

후원 서울문화재단

■ 나는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생각한다 | 황수현

2019. 7. 10(수) - 7. 13(토) 수목금8시, 토7시 | 신촌극장



초연/재연	재연
소요시간	60 분
관람연령	만 13세 이상
티켓유무	20,000원

컨셉,안무 황수현

퍼포머 강호정, 박유라, 황다솜

[작품소개]

타자들 사이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상호주관적 토대로서 신체적 공감이 작동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퍼포머들은 아주 미세한 움직임과 호흡, 리듬 등의 근감각적 재료를 사용하여 감각의 전이를 일으키며 특정한 정동을 발생시킨다. 관객은 퍼포머의 행동에 직접 반응하거나 다른 관객의 반응 행동을 지각함으로써 신체적 공감의 피드백 루프에 참여하게 된다.

[아티스트/단체소개]

작가는 지난 몇 년간 눈물을 소재로 한 퍼포먼스를 통해 감각과 감정의 문제를 탐구해 왔다. 이번 작업에서는 신체 감각과 감정의 연관성에 대한 기존의 문제의식을 타인과 공유되는 감각의 문제로 확장한다.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 Guayabo | Ania Varez (베네수엘라)

2019. 7. 11(목) - 7. 13(토) 8시 | 선돌극장



초연/재연	재연
소요시간	80 분
관람연령	만 16세 이상
티켓유무	20,000원

출연 및 컨셉트 **Ania Varez**

비디오 제작 **Gabriel Suárez**

조명 및 기술자문 **Tom Richmond**

멘토링 **Caroline Williams**

프로듀서 **Katherine Hall**

베네수엘라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

Rosanna Riccio, Marisa Riccio, Angelo Riccio and Lidia Cammarota

공연 통역 **신주훈**

텍스트 번역 **조혜정, 이재은**

[작품소개]

애도파티

Guayabo (“비통함”을 뜻하는 베네수엘라 속어) 일종의 애도 모임이다: 이민자의 현실이 어떠하며 그 고충은 무엇인지, 우리가 상실의 경험을 어떻게 견뎌내며 그로부터 얻는 것은 무엇인지, 집단적인 애도를 통해 새로이 발견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만남의 장이라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 영화, 축하의식 및 애도 의식의 원거리간 교류를 통해 사람들은 베네수엘라에 사는 Ania의 가족과 연결되고 또 그들이 처한 심각한 인도적 위기상황을 인식하게 한다. Guayabo는 생존과 변화, 그리고 연대를 위한 매개체로서 우리가 가진 기존의 행동방식 및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아티스트/단체소개]

Ania Varez 는 영국 브리스톨에 기반을 둔 베네수엘라인 예술가로서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안무, 텍스트, 영화, 음악 등 서로 다른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에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또 새로이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여기 이곳에서,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 중이다.

후원 Arts Council England

Guayabo 는 2018 년 SPILL Festival of Performance 에서 SPILL OPEN 프로그램 가운데 한 작품으로서 Jerwood Charitable Foundation 의 지원을 받아 초연되었다

사진 Guido Mencari. SPILL Festival of Performance 2018.

■ 사랑 및 우정에서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김원영 x0set프로젝트

2019. 7. 11(목) - 7. 13(토) 목금8시, 토3시7시 | 삼일로창고극장

초연/재연	초연
소요시간	60 분
관람연령	만 13세 이상
티켓유무	20,000원



연출 신재

출연 김원영

프로듀서 정소은

무대감독 임성현

영상 박동명

사진 이지양

[작품소개]

법은 당신의 연애를 관장할 수 없다. 법이 당신의 우정을 규율할 수 없다. 우리는 법과 제도, 정치의 힘을 신뢰하지만 사랑과 우정만은 지극히 내밀한 사적 영역에 남겨두어야 할 것 같다. 말하자면, 법과 정치는 장애를 이유로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주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와 다양한 구성원들과 우정을 나누고 연인을 만나는 일에 장애가 불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이를테면, '사랑 및 우정에서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공연에서 휠체어를 탄 법률가는 '사랑 및 우정에서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자 시도한다. 그는 관객에게 이 법률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설득한다. 그의 시도는 어떻게 귀결될까.

[아티스트/단체소개]

김원영

김원영은 프로젝트 극단 '파전', '장애문화예술연구소 짓' 등을 기획하고 공연제작에 참여했다.

연극<테레즈 라캥>에서는 배우로 출연했고, 2014년 변방연극제<프릭쇼>를 제작했다.

올 한 해는 극단 '애인'의 객원멤버가 되어, 움직임 워크숍을 함께 하며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0set프로젝트

'0set'은 전자저울 버튼에서 빌려온 이름이다. 이 버튼을 눌러 저울 위에 놓인 물체의 무게를 0(영, zero)으로 세팅한다. 우리는 사회적·문화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명제'를 저울 위에 놓고 0set 버튼을 눌러 다시 사유하고자 한다. 2017년 "극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활동을 시작했고, 그 질문은 또 다른 질문들로 이어지고 있다. 질문들에 답하려는 시도로서 매 프로젝트마다 참여자를 모집해 조사, 인터뷰, 워크숍, 기록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 중 일부를 공연으로 제작한다.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워크룸 >>

질문들 | 제너럴쿤스트x프로젝트 이인

2019. 7. 9(화) 3시,7시 | 신촌문화발전소 외



[작품소개]

'제너럴쿤스트는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작업을 주로 해왔다. 헤드폰을 착용한 관객들이 질문 형태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듣고 움직임으로 답하는 것이 주된 형식이다. 퍼포머가 없는 공연이라는 전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관객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도록 기획한 문답형식 스코어는 의도대로 구현되었는가 등을 탐색했다. 프로젝트 이인은 '수동적' 관객: 참여는 항상 좋은가와 우리는 무엇을 안무하는가, 라

는 질문으로 리서치를 함께 했다. 두 팀은 관객 참여와 관련해 품고 있던 질문들을 꺼내어 공유하고 구상적인 답을 찾는 실험을 해보고자 한다.

참여 아티스트 이혜령, 라시내, 최기섭

후원 신촌문화발전소

■ 워크룸 >>

내 눈 안의 너 | 문화다방 이상한 앨리스

2019. 7. 9(화) 8시 | 신촌문화발전소



[작품소개]

희곡, 소설, 시 등을 읽으면서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졌으면, 들렸으면, 만져지거나 냄새가 났으면 했던 적은 없는가? 공감각적인 읽기가 그 자체로 공연이 될 수 있을까? 라는 호기심에서 출발한 작업이다. 공연은 바스티앙 비베스의 그림책 <내 눈 안의 너>를 관객들과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 모여서 '함께 읽는 것'이 될 것이다. 아티스트들이 예술적으로 제공한 환경 안에서 반응을 서로 주고받으며 보내는 시간 자체가 공연일 수 있을지 실험해보고자 한다.

참여 아티스트

연출 윤사비나 프로듀서 임밀 비주얼 슈퍼바이저 이의행 음악감독 배현정

배우 김민혜, 신소영, 홍지인, 이동건, 이진철 무대디자이너 최병훈

후원 신촌문화발전소

서울변방연극제

서울변방연극제는?

‘변방’의 시선으로, 공연예술의 미학적 독창성을 추구하며, 동시대의 사회적인 맥락들을 포착해온 축제입니다. 1999년 자유로운 창작 정신과 실험 정신을 모토로 시작했습니다. 사회의 소수자, 국가권력의 피해자 등 비주류의 목소리가 예술 언어로 전달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량원, 강화정, 김현탁, 신재, 윤한솔, 윤서비, 오경택, 정금형 등 자신만의 언어를 구축해온 예술가들이 서울변방연극제를 거쳐 갔습니다. 올해 19회 축제 역시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과 변방의 가치가 무엇인지, 질문을 이어가며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을 만나고, 관객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서울변방연극제는!

축제의 정체성을 구축한 임인자 전 예술감독에 이어 2015년부터 연극연출가 이경성이 3대 예술감독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축제 운영을 위해 비엔날레 형식으로 특히 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축제형식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호주출신의 예술감독 아드리아노 코르테제, 총괄기획 이정은, 프로그램 디렉터 전강희, 기술총감독 김요찬 등 운영진을 새롭게 구성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제의 구조도 공연을 하는 ‘퍼포먼스’, 담론을 논하는 ‘토크’, 과정을 실험하는 ‘워크’로 개편하며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